

광주 R&D특구, 대전 종속 우려

정부, 핵심조직은 대덕특구에...광주는 기술인력만 10여명 배치 추진

대구 세미나서 지적

광주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 연구개발(R&D)특구가 자칫 대전 대덕특구에 종속돼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대전 특구를 허브로 하고 광주·대구는 지역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조직도 대전에 설치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총괄관리를 맡고 그 산하에 지역본부부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광주에는 10명 안팎의 기술사업화 인력만 배치하게 된다.

25일 오후 3시 호남권·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대구에

서 열린 '영호남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은 "허브인 대전 대덕특구는 미래 신기술 중심의 상대적으로 넓은 특화분야를 선정해 기초과학과 응용연구, 사업화 촉진과 특성화 분야 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광주·대구 특구는 각각 광산업과 IT라는 특화분야 기초·응용연구, 사업화 촉진 및 생산거점(지역 거점 클러스터)의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의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일부가 광주·대구로 이전하거나 그 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이들 3개 특구에 대한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그 결과에 따라

특구 지원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구 조직은 대전에 설치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총괄관리를 맡고 그 산하에 지역본부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 구조는 기획조정실과 인프라조정실 등 특구 핵심조직은 대전에 두고 광주와 대구에는 10명 내외의 기술사업화 인력만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자칫 광주·대구 특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획 및 인프라 조정 기능을 대전 대덕특구에만 부여함으로써 신규 특구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을 기술공급거점 허브, 광주·대구 특구를 기술수요거점으로 삼고, 조직도 이를 근거로 구성해 성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신규 특구의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인재개발센터장은 "대구·광주 연계협력력 개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와 대구가 ▲도시형 첨단산업 문화산업 및 기반(SOC) 중심 협력 ▲내륙 초광역개발권 특화기능 중심 연계협력 ▲내륙벨트 및 해양벨트와 연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동서화합형 신 녹색 성장축을 비전으로 그려내너지 첨단

의료 문화 등 녹색성장산업 고도화, 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정부추진사업 공유, 도시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광역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광주와 대구가 지역 내 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국토개발촉진에서 소외됐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개발(R&D) 특구 계획역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은 광주와 대구, 대전을 하나로 잇는 내륙첨단과학벨트 조성을 제안하고, 이들 3개 특구 내 매출액이 오는 2015년에는 2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유현석기자 chadold@

'문화나무 상상장' 제1탄 '광주, PIFF를 만나다'

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던 내가 세계 5대 영화제 만들어 낼 줄 누가 알았겠나



- 김동호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국제영화제(PIFF) 집행위원장
- 28일 오후 2시 빛고을 문화관 4층 다목적홀
- 문의: 062-670-7421, 062-220-0651

한전 건축허가 신청 나주 혁신도시 탄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최대 이

규모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지며, 총 사업비 28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전체면적 12만4000㎡에 41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으나 호화 논란이 일자 축소했다. 오는 6월 착공,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공기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다.

25일 한전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한전 관계자가 나주시를 방문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건축허가 신청은 오는 3월 착공 예정인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옥에 이어 두 번째다.

한전이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불확실성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사옥은 혁신도시에 대지 14만 9372㎡, 전체면적 9만3112㎡, 31층

한전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공정 60%를 넘어서는 등 내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대통령 "해적 국내 이송 처벌하라"

김총리, 금미호 선원 구출 방법 강구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아덴만 여

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금미호 선원들과 생포 해적들의 맞춤형 방안과 관련, "해적과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호주일리호 해적들에 대한 처벌과 금미호 선원들의 석방 협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들의 맞춤형은 좋은 방법이지만, 해적들의 소속 파벌이 다를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내

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금미호 선원들과 생포 해적들의 맞춤형 방안과 관련, "해적과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내

전남 구제역 공포 몰려온다

백신 동나 확대접종 차질...경남 뚫려 불안 확산

전남 축산 농가들 사이에 구제역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전남과 함께 청정 지역이던 경남에서조차 발생, 방역 장벽이 한꺼풀 걷히는데, 예방백신마저 동나 당분간 접종까지 어려워지면 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25일 인근 돼지농장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확인됐고 충남 공주 계룡면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8개 시·도, 63개 시·군, 146곳으로 구제역이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이 마지막 보루라며 목을 매고 있는 백신 접종도 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소

(54만9000마리)의 경우 도내 모든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접종을 마쳐지만 돼지는 종돈(10만5000마리)에 대해서만 예방백신을 접종했을 뿐 '모돈(母豚)' 8만6000마리에 대해서는 접종이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이들 농가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정부의 백신 공급이 구제역 발생지역 위주로 공급되면서 전남 양돈 농가에 대한 백신공급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날 현재 도내에 남아 있는 구제역 예방백신은 1마리 분량도 없는 상태로 차단방역 외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 축산 농가는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전남도 등 방역당국이 경남과 경계지역인 구례·광양·순천·곡성 등 지 방역 초소운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외부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농가에 백신이 공급된 이후 방역작업도 부분적으로 소홀해지는 등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끊임없이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재확산하는 추세다. 보성군 웅치면과 구례군 용방면 육용오리 농장, 영암군 학산면 중오리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 구례의 경우 사육종인 2만8900마리 가운데 6400마리가 폐사했고 보성은 1만4000마리 중 380마리, 영암 학산 농장은 산란율 감소와 폐사가 발생했다.

이로써 도내에서 접수된 AI 의심신고는 4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고병원성 AI 확진은 21건, 음성 21건, 나머지 5건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고창군 아산면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이할 가능성이 높은 'H5'형 AI가 나타나 매몰처분에 들어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오는 6월까지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 톤 중 6만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빠... 아빠... 지난 22일 고충 아파트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고가사다리차에서 추락해 순직한 고 이석훈 소방장의 영결식이 25일 오전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열렸다. 이 소방장의 내살배기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할아버지도 통곡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APPINES COUNTRY CLUB
www.happine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정회원
 - 입회금액: 3억3000만원
 - 회원특전: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월 1회 18홀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월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해피정회원
 - 입회금액: 1억9천
 - 회원특전: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 B형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 C형 무기명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월 1회)
- 주중 / 평일회원
 - 입회금액: 3300만원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제공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